

보다 긴밀한 한·일 경제관계의 모색:
21세기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제안
(공동선언문)

2000년 5월 2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아시아경제연구소(IDE, JETRO)

1. 한·일 양국은 2000년 이상 가까운 이웃국가로 존재해 왔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간 무역, 투자, 그리고 인적교류가 극적으로 증대되어 왔으나, 1990년대에 들어 무역과 투자는 침체된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1997년 하반기에 발생한 아시아 통화위기의 확산으로 한국은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었으며 일본도 역시 1992년 이후 지속된 장기적인 경기 불황에서 벗어나는데 실패함에 따라, 양국은 1998년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후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양국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1998년 10월 일본 순방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20세기의 문제들은 20세기 내에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21세기 새로운 韓-日파트너십 행동계획”을 제안함으로써 많은 일본인들의 심금을 자극하였다. 이에 따라 동년 연말까지, 수 차례의 각료급 회의와 내각차원의 회담 및 韓-日 관민합동투자촉진위원회가 개최되어 보다 긴밀한 韓-日 경제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었으며 그 결과 양국에서 공동으로 韓-日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자는 견해가 제의되었다. 1999년 3월 방한도중 오부치 겐조 당시 일본 수상은 기존의 경제협력의 범위를 넘어서 “韓-日 경제협력 의제 21”을 통하여 양국 관계를 강화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어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일본무역진흥회(JETRO)산하 아시아경제연구소(IDE)가 韓-日 FTA에 관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최근 완료된 연구결과를 이 자리를 통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2. 무차별 원칙 및 최혜국대우 원칙에 대한 예외조치로서, GATT/WTO는 FTA를 글로벌 차원의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로 인정하면서 회원국들간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호혜적으로 철폐되는 것을 승인하고 있다. 단, 이에 대한 조건으로 FTA체결로 인해 제3국에 대한 관세 장벽이 강화되어서는 안되며, FTA가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부문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과 약 10년의 기간내에 협정이 완결되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의 주요 통상국으로서 한국과 일본은 FTA 체결을 위하여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3. 본 연구는 韓-日 자유무역협정의 실행가능성에 대해 한·일간에 시도된 최초의 공동연구이다. 이제까지 한·일 양국은 글로벌차원에서만 자유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EU 및 NAFTA의 경우와 같이 현재 많은 국가들이 인근 국가들과 경제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다자무역체제하에서 자유무역협정이 글로벌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한 실용적인 접근방법이라는 인식이 증대하고 있다. 韓-日 자유무역협정은 양국간 잔존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에만 그 목표를 두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투자촉진, 무역원활화, 양국의 무역 및 투자관련 제도 및 기준의 조화 등 시장통합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망라하는 포괄적 협정체계에 목표를 두는 바이다.

4. 韓-日 자유무역협정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우선 관세 및 비관세 조치의 철폐를 통하여 양국간 무역이 확대될 수 있다. 양국이 각각 분명한 비교우위를 갖는 분야에서는 수입재화의 국내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그 결과 수입량이 증가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역창출효과이다. 한편 韓-日 자유무역협정은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이 계속 존재하게 될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무역전환효과도 발생시킬 것이다. 한국은 의류, 가죽제품, 농수산물 등에서 對日수출이 증가할 것이고, 일본의 對韓 수출은 고성능 기계, 금속제품 및 화학제품의 분야에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對日수입제품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7.9%인 반면, 일본의 對韓 수입제품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2.9%에 불과하다. 따라서 일본의 對韓 수출증대가 한국의 對日 수출증대분을 초과함으로써 한국의 對日무역적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5. 그러나 무역적자의 증가만이 韓-日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라고는 할 수 없다. 한·일 양국간에는 부품과 완제품뿐만 아니라 저급제품과 고급제품을 상호 수출하고 수입하는 산업간 무역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또한 여행, 운송, 건설, 통신, 금융 등의 서비스 산업에서도 산업내 교역이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분야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낮아서 앞서 언급한 정태적 분석을 통하여 그 효과가 추정될 수 없다. 동 분야에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한·일간 시장통합으로 양국기업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전략적 제휴도 확대될 것이다. 아울러 한·일 양국의 통합된 시장은 양국에 대한 미국과 유럽기업들의 투자도 증대시킬 것이다. 생산성이 제고되고 비용이 하락함으로써 양국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유무역협정의 동태적 효과이다. 이러한 동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KIEP와 IDE의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정태적 효과보다 동태적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이러한 동태적 효과는 기본적으로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실현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시장이 진정으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양국간 상품, 서비스, 금융자본 및 인력자원의 이동이 활성화되도록 조세조약, 투자협정, 표준·인증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타결하고, 통관절차, 기타 무역원활화 조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표준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KIEP의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조치에 따른 무역창출효과를 부분적으로 추정하였는데, 그 중 투자촉진이 핵심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분명히 양국 기업들이 상대국의 시장에 투자하는데 있어서 신뢰도를 제고시킬 것이다. 이 중 대다수 사안들이 「韓-日 경제협력 의제21」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양국간에 이미 협상이 진행중이다. 조세조약은 이미 1999년 11월부터 발효되었으며, 투자협정 및 상호인정협정은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7. 韓-日 FTA체결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협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992년 양국에 각각 설립된 한일산업협력재단과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은 중소기업간의 산업기술육성, 인적자원개발 및 생산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양국이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분야, 비효율적인 과잉설비가 존재하며 산업내 무역이 발달하지 않은

분야에서 특히 요구된다. 협력을 달성하기 위하여 KIEP보고서에서는 민간 기업들로 구성된 한일산업기술협력위원회(ITCC)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IDE보고서는 수산업분야에서도 양국 자원의 공동관리와 활용을 통한 상당한 협력의 여지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한·일 양국의 금융 및 자본시장의 통합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 기업들은 상호 협력과 제휴를 통한 경쟁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8. KIEP보고서는 韓-日 FTA로 한국의 대일무역수지 적자규모가 더욱 확대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서비스부문의 무역에서 대일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함으로써 상품부문에서의 대일무역수지적자증가분의 일부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한국의 대일무역수지적자 증가분이 동태적 효과와 다양한 무역원활화조치 등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KIEP의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가 확실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FTA의 동태적인 효율성을 실현하기 위한 일본으로부터의 직접투자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한일투자개발은행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9. 아·태지역의 국가들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韓-日 FTA 연구 제안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다.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국가들이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국가들의 지역무역협정 결성 움직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게 다음의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첫째, 韓-日 FTA는 양국경제의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며, 동시에 아·태지역의 다른 모든 국가들의 경제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동 FTA는 양국의 자유화 노력을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 아·태지역의 무역자유화 구조 및 다자간 무역체제하에서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한 양국의 선도적 조치들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둘째, 韓-日 FTA는 GATT 제24조 조항에 일치하여 추진될 것이다.
10. 양국간에 다양한 원활화조치들과 제도적 협력을 위한 협상이 이미 시작되었으나, 韓-日 FTA는 이러한 모든 협상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틀이다.

이와 동시에 韓-日 FTA는 개별협상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비전을 보여줌으로써 한·일 양국간에 한층 긴밀한 경제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추진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韓-日 FTA의 구도는 개별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촉진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금일 양측의 공동연구의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우리는 양국 국민들간에 보다 긴밀한 양국 경제관계를 위한 논의가 촉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첫 단계로 우리는 2000년 5월 2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공개적으로 한·일 공동 심포지움을 개최할 계획이다.